

제 5 단. 어떤 식으로든 낙태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 즉, 그 부모와 의료 서비스 종사자들, 국회의원들, 생각이나 말로, 혹은 행동의 부족으로 낙태를 지지한 이들의 내적 치유를 위해서 바칩니다.

주님의 기도 (1), 성모송 (3)

마침기도

하느님 아버지, 부디 낙태를 저지르는 이 오만한 세대를 용서하소서. 낙태가 저희 마음과 이 세상에, 그리고 당신과의 관계에 입힌 많은 상처들을 치유해 주소서. 진리 안에서 저희를 일치시키소서. 아멘.

(복되신 어머니 - 2013 년 3 월 24 일)

비통한 예수 성심께 바치는 짧은 묵주기도

(어떤 5 단 묵주나 짧은 묵주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아드님의 성심에 상처를 입히는 진리의 타협과 권한 남용의 죄가 천상과 지상 사이의 심연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어떤 묵주로든 다음 지향들을 위해 주님의 기도 한 번과 성모송 세 번을 바쳐라.”

제 1 단. 인류가 선과 악의 차이에 대한 진리를 깨닫기를 바라며 바칩니다.

주님의 기도 (1), 성모송 (3)

제 2 단. 교의인 신앙의 진리가 인류를 만족시키기 위해 타협되는 것이 아니라 옹호되기를 바라며 바칩니다.

주님의 기도 (1), 성모송 (3)

제 3 단. 종교 지도자와 세상 지도자들 모두 죄를 죄로서 인정하고, 절대 '특별 이익 집단'에 협조하거나 영합함으로써 죄를 지지하지 않기를 바라며 바칩니다.

주님의 기도 (1), 성모송 (3)

제 4 단. 어떤 지도부도 종교의 자유를 빼앗지 못하기를 바라며 바칩니다.

주님의 기도 (1), 성모송 (3)

제 5 단. 종교 지도자와 세상 지도자들이 모두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 혹은 무질서한 권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착한 목자로서 자신의 양떼의 복지를 위해 일하기를 바라며 바칩니다.

주님의 기도 (1), 성모송 (3)

마침기도

사랑하옵 예수님, 부디 이 기도를 당신의 지극히 비통한 성심을 괴롭히는 것들에 대한 보속으로 받아주소서. 이 짧은 묵주기도로 당신의 정의의 심판을 가볍게 해주소서. 아멘.

(복되신 어머니 - 2014 년 2 월 3 일)

HOLY LOVE MINISTRIES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37137 Butternut Ridge Road

North Ridgeville, OH 44039

Phone: 440-327-8006

E-mail: mamshl@holyllove.org

Website: www.hollylove.org

한국어 연락처

전화: (440) 657-0113

이메일: holyllovekorean@gmail.com

웹사이트: www.hollylovekorean.com

하나되신 성심의 짧은 묵주기도



낙태 종식을 위한

짧은 태아 묵주기도



비통한 예수 성심께 바치는

짧은 묵주기도

다음의 짧은 묵주기도들은 특별한 지향을 위하여 주님의 기도 한 번과 성모송 세 번씩을 한 단으로 하여 총 5 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들은 '하나되신 성심의 짧은 묵주기도'나 '낙태 종식을 위한 짧은 태아 묵주기도'와 같이 각각의 기도예에 맞추어 제작된 별도의 묵주를 사용하여 바칠 수 있습니다. 또는 5 단 묵주의 시작부분, 십자가 다음의 주님의 기도와 세 번의 성모송을 바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되신 성심의 짧은 묵주기도

(하나되신 성심의 짧은 묵주나 일반 묵주를 사용하십시오)

제1 단. 거룩한 예수 성심을 공경하며 묵상합니다.

성모님: “내 사랑하는 아드님의 성심이 얼마나 심오하며 완전한지를 나의 자녀들이 깨닫기 바란다. 완전한 사랑과 자비와 진리의 이 그릇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거라. 그분 성심의 불꽃이 너희를 태워서, 거룩한 성삼위와 하나되는 절정으로 너희를 이끄시도록 하여라. 예수님께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예수님,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성심에 대한 신심을 통하여 내 자녀들에게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내려주소서.

(복되신 어머니 - 1998 년 2 월 7 일)

주님의 기도 (1), 성모송 (3)

제 2 단. 티없으신 성모 성심을 공경하며 묵상합니다.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이시여, 당신은 지극히 순결한 은총의 그릇이오며, 참된 거룩함, 그리고 계시의 상징이십니다. 마리아여, 당신의 성심은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시며, 사악한 시대에 맞서는 표징이십니다. 사랑하올 성모 성심이시여, 이 세상의 회심과 평화가 당신께 달려있사오니, 오직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심이 수많은 칼에 찔리셨듯이 저희의 마음을 거룩한 사랑의 불타는 화살로 찔러주소서.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복되신 어머니 - 1998년 3월 7일)

주님의 기도 (1), 성모송 (3)

제 3 단. 우리 주님의 수난을 묵상합니다.

성모님: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당하셨다. 그분은 각자와 모두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분의 옆구리에서 흘러내린 끝없는 사랑과 자비의 샘물은 오늘날 까지도 계속 흐르고 있다. 십자가 받아들이기를 시몬처럼 꺼리지 말아라. 많은 영혼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은 아무도 그들을 위해 기꺼이 고통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상 모든 감실 안에 참으로 현존하시는 영원한 희생제물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복되신 어머니 - 1998년 4월 4일)

주님의 기도 (1), 성모송 (3)

제 4 단. 마리아의 통고를 묵상합니다.

성모님: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드님이 고통을 받으신 것과 같이, 나 역시 지성과 마음과 몸으

로 고통을 겪었다. 내 육체의 십자가는 숨겨져 있었고, 내 안에서 격렬하게 불타오르는 감성과 지성의 십자가는 짐작될 뿐이었다. 그러니 너희 역시 영혼들을 위하여 공을 쌓고, 세상에 은총을 가져오기 위하여 너희들의 고통도 가능한 한 숨겨져 있게 하여라.”

(복되신 어머니 - 1998년 5월 2일)

주님의 기도 (1), 성모송 (3)

제 5 단. 하나되신 예수 마리아 성심께 보속합니다.

성모님: “지금 현 순간에 거룩한 사랑에 ‘예’하고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된 우리 성심에 보속하는 것임을 너희가 이해하기 바란다. 매 순간을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려면, 엄격한 자기 수련과 하느님의 신성한 뜻에의 내맡김이 요구된다. 너희가 재산이나 중대한 일들, 그밖의 다른 것들을 희생할 수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은 없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보속행위다.”

(복되신 어머니 - 1998년 6월 6일)

주님의 기도 (1), 성모송 (3)

(위 기도가 끝나면 메달에서 예수 마리아의 하나되신 성심께 다음의 기도를 바치십시오.)

하나되신 예수 마리아 성심께 바치는 기도

오, 하나되신 예수 마리아 성심이시여! 당신은 모든 은총이시고 모든 자비이시며 모든 사랑이시나이다. 제 마음을 당신 성심에 결합시키시어 모든 소원을 하나되신 성심께 봉헌하게 하소서. 특히 이 청원을 들어주시어 은총을 베풀어주시고, **(지향을 말씀드림)** 제 삶 속에서 당신 사랑의 뜻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소서. 아멘.

하나되신 예수 마리아 성심의 거룩하고 신성한 상처들이시여, 저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낙태 종식을 위한 짧은 태아 묵주기도

(5 단 태아묵주나 5 단 짧은 태아묵주를 사용하십시오)

“나는 낙태종식을 위한 싸움에 쓰이게 될 또 하나의 중요한 무기를 가지고 왔다. 너희도 알다시피 낙태는 정복되지만 하면 세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는 무기는 ‘낙태종식을 위한 짧은 태아묵주’다.”

성모님께서 ‘하나되신 성심의 짧은 묵주’처럼 생긴, 1 개의 주님의 기도와 3 개의 성모송이 5 단으로 엮어진 짧은 묵주를 들어 보여주십니다. 묵주알들은 태아묵주의 묵주알들처럼 생겼습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음의 각 지향마다 한 번의 주님의 기도와 세 번의 성모송을 바쳐라.”

제 1 단. 하느님께서 잉태의 순간에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이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며 바칩니다.

주님의 기도 (1), 성모송 (3)

제 2 단. 낙태를 합법화한 모든 법의 폐지를 위하여 바칩니다.

주님의 기도 (1), 성모송 (3)

제 3 단. 모든 임신부들이 몸 속의 귀중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라며 바칩니다.

주님의 기도 (1), 성모송 (3)

제 4 단. 낙태를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이가 진리 안에서 양심의 가책을 깨닫기 바라며 바칩니다.

주님의 기도 (1), 성모송 (3)